第294回國會
(定期會)

國際競技大會開催및誘致支援特別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10年11月23日(火)

場 所 特別委員會會議室(議員會館 101號)

議事日程

1. 국제경기대회 유치·추진 현황 보고
2. 2010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결과 보고
3.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현황 보고

審査된案件

1. 국제경기대회 유치·추진 현황 보고 ····· 1
2. 2010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결과 보고 ····· 1
3.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현황 보고 ····· 1

(14시08분 개의)

○위원장 황우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정의화 위원께서 사임하시고 주호영 위원께서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주 위원님 인사는 좀 이따 받으시기로 하고.

---

1. 국제경기대회 유치·추진 현황 보고
2. 2010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결과 보고
3.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현황 보고

○위원장 황우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기대회 유치·추진 현황 보고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0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현황 보고,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광저우아시안게임 참가 및 선수단 격려로 인하여 지금 출타 중입니다. 따라서 박선규 차관이 대리 출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이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회 참석으로 역시 출타 중이라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이 광저우아시안게임에 출장 중인 관계로 기획운영본부장이 배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장이 2018년 후보 도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위하여 역시 출타 중이므로 사무총장이 대리 참석함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께서도 조금 전에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고 여러 문제에 대한 질의 답변을 기획재정부에서 류성걸 차관과 사회예산심의관께 맡기기로 하고 저희 양해하에 지금 예결위장으로 떠났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김용기 인사복지실장과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유치지원단 부단장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남포뮬러원조직위원회, 대구육상대회조직위원회, 충주조정대회조직위원회,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광주유니버시아드조직위원회,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배석자 명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국제경기대회 유치 추진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박선규입니다.

존경하는 국제경기대회개최및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10광저우아시안게임 출장으로 인해서 장관을 대신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널리 양해해 주시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추진 현황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22FIFA월드컵 유치 현황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는 우리 선수들이 가슴 벅찬 선전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그동안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어우러진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1F1코리아그랑프리대회를 비롯해서 향후 개최 예정인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모든 국제대회를 준비해 나감에 있어서 그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중인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오는 12월 2일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는 2022FIFA월드컵의 유치 성공을 위해서 정부는 유치위원회, 그리고 민간 부문과 함께 더욱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국제대회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6개 국제대회별로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의 1쪽입니다.

대회 개요 부분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위한 최적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경기장 시설, 선수·미디어촌 등의 공사가 내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숙한 경기운영 역량 제고를 위해서 국제육상경기연맹 기술진과 주관 방송사 KBS와 함께 내년 8월 24일~26일까지 최종 종합 리허설 실시로 경기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최상의 대회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난 7월 자원봉사자 모집을 끝냈고, 직종별 직무 전문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항공사와 협의하여 인천-대구 간 항공기를 증편 운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풀 스타디움을 위해서 입장권 판매대행사를 선정해 국내외 입장권 판매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류스타·의료 마케팅과 연계해서 중국과 일본 등의 해외 관람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장권 판매 런칭 등 대회 붐업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계층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대회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사업비 609억 원을 확정하여 경기장 조성을 위한 실시 설계 및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2011년까지 대회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2012년 5월 프레 대회로 2012년 런던올림픽 아시아지역 조정 예선대회 개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목표인 참가국 80개국, 선수 2300명 유치를 위해서 국제연맹 및 각 대륙별 연맹과 협력해서 참여 국가 확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회조직위는 국제 조정 경기장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서 내년 3월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진입도로, 마리나센터 등 각종 시설 공사를 2012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유인물 6쪽입니다.

대회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대회 시설계획과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회 슬로건으로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로 정했습니다. 엠블럼과 마스코트를 확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회 일정에 맞는 최적의 경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주요 경기시설을 2013년 8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대회 운영계획의 조기 수립으로 최상의 대회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27일 중국 광저우에서 대회기 인수를 계기로 대회 붐 조성을 위한 계기별 홍보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 측과 OCA 간 경기종목, 테스트 이벤트 개최 문제, 그리고 마케팅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현재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경기장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19일 인천시에서 경기장을 40개소에서 50개소로 늘리고 선수촌 및 미디어촌은 9월 보금자리주택 등 기존 계획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동 계획 변경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회지원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회 필수시설 여부, 정책의 일관성과 경제성 측면 등을 종합 검토해서 정부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인물 9쪽에 있습니다.

대회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금년 2월 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6월 경기 준비 및 운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했습니다.

대상별로 특화된 대회 홍보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서 금년 10월 한국체육학회 주최 정책컨퍼런스를 개최했고, 5월과 11월에는 중국 선전 및 벨기에 브뤼셀에서 FISU 집행위원회에 대회 준비상황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상반기까지 대회 주제 및 슬로건을 개발할 예정이며, 대회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 상반기까지 경기 운영, IT, 미디어, 수송, 숙박, 의료 등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안 사항으로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이 올해 1월 개정되어서 광주대회에 대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수익금이 배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는 올해 7월 시행령 개정을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속한 개정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내용은 유인물 11쪽에 있습니다.

대회 개요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범국가 차원의 유치지원 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원주－강릉 간 철도 복선화 검토 지시와 함께 IOC 위원 면담 등을 통해서 정부의 전폭적 유치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정부지원실무위원회와 정부지원위원회를 개최해서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특위 지원회의를 개최하고, 지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미디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밴쿠버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행사에 참가해서 IOC 위원을 면담하고 적극적인 국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IOC 일정에 따른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내년 1월 11일까지 후보도시 파일 제출과 함께 2월 IOC 조사평가위원회 현지 실사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현안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후보도시 파일을 차질 없이 작성하기 위해서 11월 말까지 파일에 담길 17개 주제, 261개 항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최고의 비드 파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예정인 IOC 현지실사와 관련해서는 최적의 프로그램과 완벽한 의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실사 기간 중 평창에서 동계체전을 개최하고 2011 드림 프로그램 실시 등 다양한 행사 기획을 통해 국내외 유치 붐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 FIFA 월드컵 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유인물 14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월드컵 유치 성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위해서 대통령의 블래터 FIFA 회장 및 대륙별 FIFA 집행위원의 면담과 함께 FIFA 집행위원국 정상 대상 친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비드북 제출 및 FIFA 실사와 관련해서 국가 차원의 유치 의지 표명 및 대회 개최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사항에 대한 정부 보증을 했습니다.

또한 남아공월드컵 및 U-20, U-17, 여자월드컵 등 계기별 국제대회 등을 통해서 FIFA 집행위원들의 표심 성향 파악을 통해 전략적 유치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유인물 15쪽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 월드컵 개최지 선정을 위한 FIFA 집행위원회 최종 프레젠테이션 참가 예정에 있습니다.

2022 월드컵 개최지 선정은 다음달 2일 스위스 FIFA 집행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집행위원 과반수 득표를 얻는 국가가 월드컵 개최 국가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유치 경쟁국가는 미국과 호주, 카타르, 일본이며, 개최국 선정을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우리나라가 호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현지시간 오후 3시에 실시됩니다. 개최국 선정은 12월 2일 현지시간 오후 4시경,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3일 새벽 0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 국제경기대회 지원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대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존경하는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갖추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된 2010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에 높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동안 우리 전남이 F1 대회를 추진해 오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된 첫 F1 대회에 무려 16만 명의 관광객이 경주장을 찾았습니다.

이는 F1 대회 60년 역사상 신생 서킷 최대 관람객 수치이며, 우리나라도 모터스포츠 분야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88올림픽, 2002 월드컵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 개최로 국운 상승의 계기를 마련한 것처럼 F1 대회도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와 함께 전남의 지역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첫 대회인 관계로 문제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또 F1 대회는 다른 국제행사와는 달리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최소 6년, 최대 11년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F1 대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버금가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F1을 개최한 19개국 중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제외한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독일 스페인 등 16개국은 국가나 국영기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주장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아 F1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호주 바레인 등은 매년 정부가 500억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인도가 내년 개최를 하면서 국가 올림픽위원회가 주관을 하기로 했고, 2014년부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러시아도 경주장 건설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F1 대회는 국가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자동차 등 산업진흥 효과, 그리고 대회 개최에 따른 국민경제 파급효과 등 큰 국가적 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현재도 F1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가 간·지역 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은 경제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전남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래 우리 후손들이 오늘보다는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은 것을 성장동력으로 만들고자 그중의 하나로 F1 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앞으로 F1 대회뿐만 아니고 GP2, F3, 모터사이클대회 등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는 물론 신차 발표회, 튜닝 및 부품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서 연간 200일 이상 활용이 가능하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향후 F1 대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더 없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경륜이 높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F1 대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종문 F1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주동식 전라남도 F1대회지원본부장입니다.

신중석 대회조직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0F1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 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조직위원회 박종문 사무총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종문 F1대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F1 대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겠습니다.

대회 개요는 생략을 하고요, 금년에 12개 팀에 저희 관중은 금요일 날 2만 2000, 토요일 날 6만 3000, 결승전 24일에는 8만 명이 모이는 국내 최대 관람객을 모으는 기록을 세우면서 F1 대회가 성료가 되었습니다.

금년 F1 대회 코리아를 개최함으로써 이런 개최 성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미디어 노출 효과가 가장 큰 F1 대회 개최로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와 국가 신인도가 크게 제고가 되었다, 그 외에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아직도 모터스포츠는 불모지역인 이 지역에서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었던 전남에서 사상 초유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앞으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대회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의 기틀을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남에서 개최된 F1 대회 관련 각국의 언론 반응은 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평가로서는 모터스포츠의 불모지역인 한국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F1 대회에 진입해서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올림픽과 월드컵, F1을 모두 개최한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대열에 합류하면서 크게 성공했다는 외신의 종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대회 개최 원년에 흥행 성공', '역대 그랑프리 중 최고 흥미진진' 등 평가로 향후 6년간 매년 개최되는 대회 성공의 기초가 되었다는 보도 내용들이 아래와 같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평가도 일부 있었습니다.

경주장의 미완공, 고급 숙박시설의 부족, 교통정체 등 여러 가지 대회에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으로 대회를 개최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개최된 F1 대회 성공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 대회 개최 준비에 참고하고자 최근에 한국산업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금년 대회 개최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을 의뢰한 바 있었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로서는 2010년 F1 그랑프리 대회의 생산유발 효과가 1조 44억 정도 앞으로 7년간 계속되는 그런 효과를 갖추게 되어 있다. 직접 지출액 대비해 생산유발 효과도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의 비슷한 수준으로서 효과가 있다.

특히 개최 지역인 전남지역에 대해서는 생산유발 효과가 6500억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브랜드가치 상승효과로서는 F1 대회가 연간 누적 관람객이 400만 명, 전 세계 고정 시청자가 약 6억 명 이상으로 현존하는 국제경기대회 중에서 미디어 노출효과가 가장 크다. 그래서 그

랑프리의 국가브랜드 상승효과는 2조 3000억에 달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대회와 관련해서 국내외 주요 미디어 시청률과 그 효과를 보면 결승 당일 유럽 주요 5개국의 평균 시청률이 44.9%로서 높은 반면에 국내 시청률은 다소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내 모터스포츠 역사가 아직 일천하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F1 대회가 중계국이 약 180개국 대상으로 시청률을 반영한 해외 미디어 노출효과는 약 2조 9900억 정도 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산업 창출과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도 크다고 하는 내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전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경주장 일원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에 집적화될 수 있다는 여건을 크게 조성해 주었다는 판단이 나와 있고요.

앞으로 모터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크게 발전되어서 새로운 자동차 관련 산업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연구과제에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향후 과제로서는 일부 언론에서 일반 스탠드 등 이번 대회를 통해서 미완공 상태로 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대회장 운영에 약간의 혼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대회까지 완공되지 못했던 일반 스탠드, 한식 육교, 미완공 시설은 철저히 안전검사를 통해서 조속 준공 처리해서 각종 관람객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국민의 건전한 국민체육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숙박 대책과 관련해서는 유일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영산강하구언을 통한 교통혼잡 때문에 교통의 혼잡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서해안고속도로에서 경주 간 직접 접근선을 개선하는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마는 2012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또 목포대교가 2012년 완공 예정입니다마는 조속히 건설을 해서 내년 대회에는 차질이 없도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F1 호텔을 지정해서 지역의 부족한 고급 숙박호텔 실정을 좀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으며, 특별히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 개발사업으로 고급 숙박시설의 투자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시에 마케팅 역량을 제고해서 2011년 대회 스폰서 기업을 확보하고 TV 주관방송사를 조기 선정해서 해외 마케팅 등을 포함한 국내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서 수익사업에 전력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F1 대회의 추진체계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 F1 대회는 조직위원회 주도로 준비체제를 전환하고 이원화된 운영 체제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F1 그랑프리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F1 대회 개최 관련 비용은 조직위원회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조달하고 경주장 건설비용 및 관리비용 등은 KAVO가 자체 부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주장은 상시 활용 및 모터스포츠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금년도 대회를 금·토·일 개최를 했습니다만 대회장이 계속해서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회를 10월 24일 마친 후에 금년 11월 중에도 첫 번째 주·두 번째 주·세 번째 주·이번 주까지 계속해서 매주 국내 자동차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자동차 대회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레저스포츠 시설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 F1 개최국의 경우 국가 신인도 제고, 관광,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회 유치를 하고 건설비·대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F1 대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더불어서 3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고려해서 지방재정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노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열악한 도 재정 형편상 경주장 건설 추가공사비, 미확보 국비조달, 대회 운영에 소요되고 있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가능하

면 지원해 줄 것을 간절히 요망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대회를 통해서 미확보된 국비분 352억, 내년도에 저희들이 대회 운영비를 총괄적으로 680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수익 부분은 390억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외 F1 대회 국가 지원사례는 지금까지 각국에서 F1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러 가지 운영시스템이라든가 그 운영시스템에 대한 지방정부 내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례를 열거해 놓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는 최근의 F1 대회에 대한 각국의 동향을 참고로 표시해 드렸습니다.

14페이지에는 내년도 F1 대회는 우리나라는 열일곱 번째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일정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용기입니다.

국제경기대회 개최 및 유치 지원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특위 황우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국회 예결위원회 출석 중인 국방부장관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는 전 세계의 군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쌓고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군인스포츠 행사로서 1995년 제1회 대회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념·인종·언어의 벽을 초월한 평화의 메시지·메신저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는 내년 말 문경으로 이전하게 될 국군체육부대의 국제 스포츠 기반시설과 88올림픽 및 2002년 월드컵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회 유치 경험 그리고 개최 도시인 문경시민의 뜨거운 열정을 토대로 지역구 의원이신 이한성 의원님과 함께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1쪽입니다.

CISM이라는 용어를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CISM은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라는 뜻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948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목적은 세계군인들의 우의증진 및 유대강화로 세계평화 유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한국은 1957년에, 북한은 1993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회원국은 133개국입니다. 경기종목은 현재 태권도 등 26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세계종합군인체육대회는 4년 단위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제6회 대회 개최 국가는 내년도 서울에서 CISM 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송파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저희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이전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체육부대의 문경 이전 시 최신식 경기시설을 활용한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국방부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한성 국회의원님과 국방부장관 간에 08년 8월 달에 구두합의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09년도 10월 달에 2011년도 CISM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청하였고 동시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09년 12월 달에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추진단(TF)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부터 4월 어간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국제행사의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금년 8월 24일 날 정부로부터 국제행사개최 승인을 획득하였습니다.

10월 달에는 유치신청서를 CISM 본부에 제출하였고 10월 29일에는 특위 위원이신 이한성 위원님을 모시고 요르단에서 개최된 CISM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유치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유치계획은 위원장님 좌 상단에 놓여진 책자의 형태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회는 2015년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2015년 5월이고 대회장소는 문경권과 포항권 등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6개 도시에서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경기종목은 CISM 공식종목인 26개 종목 중에서 스키를 제외한 25개 종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도표 맨 밑에 보시면 저희 한국이 경기력이 높은 양궁과 배드민턴, 야구와 같은 종목을 시범종목으로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참가규모는 110여 개국에 87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경기장 신설 및 활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축구 등 16개 종목 경기장은 체육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경기장을 사용하고 9개 종목은 경기장에 약간의 시설을 배치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선수촌 및 숙박시설 현황입니다.

임원 숙소는 CISM 규정에 의거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선수촌은 개최 도시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수송지원은 입·출국 시의 수송지원과 숙소와 경기장 간의 이동에 필요한 수송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군인들만의 체육대회로 되면 경기관람 인원이나 붐 조성이 어렵기 때문에 현역군인들과 학생·주민을 아우르는 그러한 관람객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소요재원 조달은 소요재원은 총 538억 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협약을 하였습니다. 수익금은 약 108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도 유치활동 예산은 약 2억 원 정도 현재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으로써 국격 제고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세계군인체육대회를 통한 한국의 평화의지를 구현하는 것이 CISM 본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원국 간의 이념과 대결을 초월한 우호협력 계기가 마련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방산 수출 및 해외자원 획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방산 수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회 기간 중에서는 여러 가지 전시회나 현장방문, 위력시범 등 대한민국이 개발한 방위산업 기술을 소개하고 구매를 촉진하는 활동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외자원 획득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군체육부대 문경 이전 관련한 기존의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경기장이 위치할 국군체육부대의 이전으로 보유하게 될 시설을 활용한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얻어지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특히 군·관·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문경지역이나 기타 6개 도시 낙후된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군과 지자체의 상호 신뢰도 증가 및 상생하는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국방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된다면 새로운 지역발전의 모델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올림픽이 상업화에 성공하고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그런 사례를 CISM 본부에서는 크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와 2018년 동계올림픽을 동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필요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향후추진은 내년도 3월 달에 CISM본부로부터 대회개최평가위원회가 사전에 실사를 나옵니다.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서울 CISM총회가 내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때 개최국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개최국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간사 위원들과 협의한 대로 위원 1인당 주 질의시간은 7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에는 답변시간도 포함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반갑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한나라당 권성동 위원입니다.

먼저 F1코리아그랑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TV를 통해서 경기장면을 지켜보았지만 젊은이들에게 또 모터스포츠를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틀에 걸쳐서 대회가 열렸는데 마지막 날 제가 참석하고 싶었는데 그 전날에 간 지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기장까지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어서 가야 된다, 예외 없이 걸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포기를 하고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굉장히 서울에서도 많이 갔고 또 아들놈도 가겠다고 그러는 것을 내가 그 얘기 듣고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중들한테 편하게 구경할 수 있도록 경기장까지 갈 수 있는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전화만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 실상은 어떻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개최를 하면서 사실 SOC 예산에 엄청나게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여수엑스포 거기에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있는 것으로 잘 활용하자, 그래서 우회도로를 많이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목포에서 거기 바로 지나는 다리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완공이 안 됐군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그러니까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바로 거기로 접할 수 있도록, 그 도로가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빨리 완공하면 훨씬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내년도에는 좀 더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그런데 실제 알려진 것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권성동 위원 그렇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들어갈 때는 오전부터 전부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나올 때 시간이 걸렸는데 도시 같으면 보통입니다. 그런데 낙후지역에서 열리다 보니까 처음으로 그런 교통지체를 경험했거든요. 과장된 점도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감사합니다.

○권성동 위원 문광부 차관님, 저는 우리 지역 평창·강릉이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도시니까 누구보다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서를 보니까 IOC 위원별로 1 대 1 맞춤식 접촉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 일단 조직위원회에서 IOC 위원들 전체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고 그러면 그렇고요. 누가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서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권성동 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권성동 위원 김진선 전 지사가 거기 무슨 대사인가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던데 김진선 지사한테 부여된 임무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체육특임대사라고 말씀드리면 될 텐데요. 유치와 관련돼서 김진선 전 지사가 두 차례의 유치활동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이 쌓아놓고 있는 IOC 위원들과의 교분이 많이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러면 김진선 지사한테 특임대사니까 IOC 위원들하고 접촉 또 그 접촉 결과 또 여러 가지 밝힐 수 없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권을 다 부여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김진선 지

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분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권성동 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올림픽유치위원회 위원들만 IOC 위원들 접촉할 수가 있고, 정부 관계자는 접촉할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촉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는데 접촉을 여러 사람들이 아주 복잡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가장 효과적인 한 사람 택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성향분석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접촉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접촉이 가능합니다.

○권성동 위원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권성동 위원 문제는 유치가 성공하려면 제가 보기에 유치위 회장하고 위원장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통령께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적극 나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뒤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럼요. 공개 못 할 것 없습니다. 공개할 수 있고, 평창 현지도 방문하셔서 상황도 보고를 받고……

○권성동 위원 그것 말고 IOC 위원들과의 관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IOC 위원들도 해외에 나갈 때 가능한 부분에서 접촉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IOC 위원들도 만나서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성동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권성동 위원 이건희 IOC 위원은 활동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이건희 IOC 위원은 해외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시지요.

○권성동 위원 정기적으로 위원회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도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저희들 같이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권성동 위원 이건희 회장의 활동사항도 중요하고, 대통령도 중요하고,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이 뛰어주면 더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청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월드컵하고 같이 우리가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정몽준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권성동 위원 정몽준 대표 말고 정몽구 회장.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정몽구 회장이요?

○권성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각 개인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열 분을 맡아 주실 분들이 계시고, 열다섯 분을 맡아줄 분들이 계시고, 어떤 경우에는 한 분, 두 분을 맡아준 분들이 계십니다. 정몽구 회장은 그 중에는 본인과 관련 있는 기업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권성동 위원 지금 유치 성공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지금 단계에서 성공 가능성을 섣부르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고 있다……

○권성동 위원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상당히 저희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권성동 위원 유치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사무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다 마치셨습니까?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일 위원 F1그랑프리대회를 치르시느라고 박준영 위원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도로 문제라든지 숙박 문제라든지 기타 관중 동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었는데 그나마 젊은 층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무난히 치른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이번 F1대회에 대한 총평과 전남도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를 말씀해 주시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이번에 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대외적으로 이것이 코리아그랑프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를 보면 유럽 쪽에서 이것은 중계를 거의 24시간 할 정도로, TV채널이 있을 정도로 한 6억 명이 보기 때문에 코리아그랑프리가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또 비가 와 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선수들한테는 안 좋지만 관람객한테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는 평가를 또 하더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다른 국제행사처럼 재정을 100% 투입하지 않고 민자유치를 했고 그래서 수익구조를 갖고 자꾸 저희가 논의를 합니다마는 올해 경기장 건설하는 기간이 배추값이 그렇게 올라가듯이 비가 두 달 동안 와 가지고 저희가 건설에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티켓판매라든가, 기업들도 열리느냐 마느냐 해 가지고 스폰서를 하지 않고, 그래서 수익구조에서 저희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못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모터스포츠가 젊은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런 기능과 함께 튜닝산업이라든가 스피드산업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또 하나의 산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상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날씨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 조성하는 데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익구조 측면에서 민·관 합작투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국감 때 광주시 감사과정에서 말씀들은 바가 있는데 사실 전남도 전체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광주시장님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광주시내의 숙박이라든지 기타 그것에 따른 부설작업으로 국한되지 않고 전남도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지사님께서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일 큰 문제가 결국 숙박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템플스테이라든지 아니면 한옥 문제라든지 캠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크루즈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숙박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와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숙박시설이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경주장 주변에 숙박시설이 몰려있는 경주장은 거의 없습니다. 대개 1시간, 2시간 그 범위인데, 그래서 광주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전남지역은 거의 많이 찾고요. 나중에 일본관광객 900명, 1000명 단체로 오겠다고 하는데 숙박시설이 없어 가지고 못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당부분이 확충이 될 것이고요.

크루즈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빌려서 하는 것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한 1000명이 오겠다고 그러면 크루즈를 빌려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상당량이 확보가 될 것이고요.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2시간 거리 내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상일 위원 실제 크루즈를 임차하셔 가지고 이번에 대회 운영하는 데 이용하셨냐 하는 말씀이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그것을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 빌리는 값하고 그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대회 개최 2개월 전에도 그 부분을 계속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를 제가 확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가능성이 없게 되면 비현실적인 계획은 잡지 않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우려가 돼 가지고, 임차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경기장하고 크루즈를 띄워놓는 관계하고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투숙객

문제가 확보가 되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손실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회 개최 전에 특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예, 감사합니다.

○윤상일 위원 그리고 F1 경기를 치른 이후에 자치단체별로 경기장, 스포츠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입장 수입이 어느 정도, 예상 수입과 실질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됐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그 부분에서 이번에 기업들 광고나 후원하고 입장권 판매가 경기장 건설이 늦어지면서 열릴 수 있느냐 못 열리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입장권 판매가 한 200억 정도가 덜 팔렸습니다.

○윤상일 위원 그렇다면 당초 예상했던 입장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저희들이 한 400억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상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560억 정도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계산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른데 초기고 하기 때문에……

○윤상일 위원 실제 입장 수입은 얼마였습니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제가 지금 완전하게, 집계가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늦느냐고 그러는데 아직 지불이 안 되고 그래서 한 180억 정도 수입이……

○윤상일 위원 앞으로 경기장 운영에 관해서 아주 자신 있게 한 200일 정도 가동 수를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차피 F1을 개최하셔 가지고 이미 경기장이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대회 운영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상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존경하는 황우여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현황 보고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주셔 가지고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학용 간사님과 이명규 간사님을 비롯한 특위의 선·후배 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고 또한 잘되도록 많은 협조를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문경에 유치할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얘기하기 전에 같이 우리나라에서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되고 또 유치된 대회는 성공적으로 잘 개최되기를 문경 유치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타 지역의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김용기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치밀하게 잘 준비해 주셨고 요르단 이사국 회의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것은 지금 현재 단독신청 상태니까 내년 3월에 있을 실사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있을 총회 준비도 만전을 기하셔서 가급적이면 많은 나라가 오고 또 많은 나라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 문경이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를, 마이크를 갖다 대시지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유치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현재 단독신청 상태라서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기는 하지만

유치위원회, 다른 데는 지금 다 유치위원회지요? 우리 국방부 군인체육대회만큼은 유치지원단 하나 있는 상태라서 격상시킬 필요는 없는지, 유치위원회를 만들고 그 산하에 활동 부서로서 유치지원단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지원단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조직위원회나 기타 필요한 기구를 만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내년 3월 초 정도 되면 약 한 3개월 정도 실사 준비기간이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예, 그렇습니다.

○이한성 위원 한 3개월 남았는데 현재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는 것이 숙박시설이라고 할까 또 6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만큼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경상북도와 협조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솔직하게 문경시 측과 협조를 이뤄왔지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래 왔지요? 앞으로는 경상북도, 도지사에게도 제가 부탁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경상북도 측과도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준비를 하는 확대된 협조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경상북도와 협의체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6개 도시가 다 공동으로 관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실장님도 아까 시범경기종목에 양궁과 배드민턴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예천에 국제양궁장이 있기 때문에, 양궁경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지 않더라도 양궁을 선택할 경우에는 가까운 자치단체 예천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능률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알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문화체육부 차관님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한성 위원 아까 보고를 보니까 같은 체육대회이기는 한데 선수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우리 문경 대회는, 우선 안건이 오늘 처음 올라왔으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빼놨습니다. 언급을 하시더라도 끝에 한마디 2015년 문경 군인체육대회도 언급을 하시는 방향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좀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른 여타 국제대회와 달리 군인체육대회는 주관 부서가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은 이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다른 일들을 전체적으로 진행하시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주관하시기는 하겠지만 문화체육부에서 체육 차원에서 우선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요르단에서 이사국회의에 프레젠테이션하면서도 이사국 대표단이 얘기하는 것이 '그 지역에 문화콘텐츠가 참 많더라'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있고 또 3대 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확충 사업에 많은 예산이 시기에 맞게 집행돼서 모처럼 추진하는 국제대회에 외국 손님들이 와서 많은 한국의 문화적 심오함을 느끼고 가게 그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와 협의 잘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다음에 기재부의 류성걸 차관님 이렇게 자리를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지금 국군체육부대 앞을 지나가는 도로가, 이게 지금 1800억 예산인데 올해 한 20~30억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5년 체육대회 때 과연 도로가 완성될 것인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한 해 한 300억 정도 배정이 되어야 겨우 완성될까 싶은데 그 점이 걱정이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올해 당장이라도 예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국토해양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또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3대 문화권 사업, 그다음에 내륙문화권 사업이 또 있습니

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이한성 위원 그런 것 중에 문경 지역을 중심으로, 물론 다른 타 5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사업이라든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시기에 맞게 예산 지원해 줘서 이런 것이 완공되어 가지고 201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상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류성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재 위원 인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는 누가 나오셨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제가 나왔습니다.

○이학재 위원 혹시 이일희 본부장님, 광저우 아시안게임 현장에 가 보셨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예, 지난번 개막식 때 다녀왔습니다.

○이학재 위원 지금 계속 잘 개최가 되고 있는 것을 저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보시면서, 인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7만 석에서 오히려 지금 6만 석으로 줄였는데 그것 결정을 잘했다고 보시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지난번 TV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한 2만 5000석 규모의 별도의 경기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경기장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이학재 위원 현장에서 보시기에, 주경기장 거기서 개막식도 하고 주요 경기들을 해야 되는데, 육상경기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특히나 제가 인천 참 걱정이 되는 게 체육인의 체육행사 정도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보면서 중국이 정말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대국으로 세계무대로 나오는 그런 이벤트 행사로 이것을 삼고 있지 않나, 광저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행사를 통해서 만방에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준비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천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 문제를 계속적으로 돈을 얼마 아끼자, 규모를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 스포츠 행사로 접근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봤던 겁니다.

구체적인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확정안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에서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지금 변경계획을 문체부에 상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학재 위원 아직까지 협의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하신 거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저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규모도 축소하고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고 하는데 규모 말씀 잠깐 드렸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을 하면 이것이 시 재정으로 행사를 꾸려 나가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사실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학재 위원 누가 안 나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신 답변하실 분 누가 계신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시에서 지원본부장이 나왔는데 지금 잠깐 화장실 가서 자리에 없습니다만……

○이학재 위원 그러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우리 인천시 재정이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어려운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경기장 규모도 저희들이 축소를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인천시에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는 것만큼 오히려 규모를 안 줄이고 민자를 그만큼 투입을 했으면 예산이 절감되는, 예산상의

문제가 거의 비슷한, 규모를 줄인 만큼 민자가 안 들어오니까 거의 상쇄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민자를 끌어들이고 규모를 안 줄이는 게 오히려 맞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지금 걱정하신 문제는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결정한 정책적인……

○이학재 위원 사후관리 문제도 지금 민자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대책이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인천시에서는 규모를 줄이고 줄이는 부분을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재정규모를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차관님, 지금 재검토 확정안 검토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넘어온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검토안이 인천시의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저희가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정사업으로 넘어왔거든요. 넘어와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에 말씀을 드린다면 인천시에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인천시에서 지방비하고 민자 유치를 해 가지고 이 경기장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벌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전체가 달라지면서 재검토에 대한 내용을 정부에 검토해 달라 올라온 그런 단계거든요.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재 위원 이게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천시에서 사업 자체 규모라든지 사업방식을 바꾼 것도 굉장히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막 시간을 다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차관님도 모르겠다고 하고 인천시에서도 명확하게 자신감도 없고, 이것은 좀 너무나 사업을 졸속적으로 추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재정사업으로 정말 바뀐다고 하면 광저우 같은 경우에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가지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만큼 인천시에서는 지금 462억의 국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관님께서는 인천시에서 절차적인 문제에 문제가 있다고만 보시지 말고요,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니만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절차적인 문제로만 보고 있지는 않고 또 인천의 문제를 인천의 문제로만 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가 지금 치러야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정부 전체가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경제성 측면 그것이 전체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돕되,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전제로 하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재 위원 추가로 시간 주시나요?

○위원장 황우여 예, 그러시지요.

○이학재 위원 지금 할까요?

○위원장 황우여 예, 지금 하시지요.

○이학재 위원 연이어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언론에도 크게 나고 그랬는데 실내아시안게임과 관련돼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원래 신설하는 것에서 문학경기장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현 시장님이 취임하기 이틀 전에 OCA 회장하고 가서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이런 협의를 하고 오셨지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나중에, 이게 최근에 언론에서 막 터지고 있는데, 실내아시안게임과 관련된 협약을 하고 오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셨었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테스트 이벤트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6월 말에 송영길 시장님께서 당선자 신분으로 쿠웨이트

에 가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명을 하고 오셨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학재 위원 잘 모릅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나중에 알게 되셨겠습니다마는 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6월 말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충분한 검토가 좀더 있었으면 했다는 그런 바람이었고 또 그 과정을 저희들이 깊이 있게 같이 선행적으로 참여를 못 한 그런 절차는 있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거기 시장님 가시지 못하게 했어야지요. 그걸 가서 서명까지 하고 와서 지금 이거 감당하느라고 쩔쩔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죄송합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또 새로 되신 시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한, 그런 시 입장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이학재 위원 새로 되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시고 하신 건가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조직위원회 입장에서는 일단 테스트 이벤트를 하는 주체가 인천광역시가 되다 보니까 조직위 자체에서는 일단 직접적인 주체는 아닙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증을 하고 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1, 2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처음에는 저희들이 비용 산정이 좀 어려웠습니다만 최근에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저희들이 규모를 좀 축소하고 또 나름대로 OCA 입장을 반영해서 했을 경우에 한 200억 정도 내외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는 300~400억 정도 더 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당초에 저희가 판단했던 자료 같습니다.

○이학재 위원 그러면 이게 돈 아낀다고 문학경기장 리모델링해서 쓰자고 가서 내용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덜커덕 실내아시안게임 한다고 협약하고 오는 것, 정말 이런 것들은…… 물론 시장님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시면 제가 좀더 세게 어필을 하겠지만 같이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인천시 의도대로 규모도 축소하고 이렇게 해 갖고 잘 협의가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지금까지도 OCA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테스트 이벤트는 지금 인천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만 그 결정된 상태를 봐 가지고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비용을 안 들이는 마라톤대회나 테니스대회나 아니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걸로 해서 테스팅 베드를 맞추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현명했었는데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정말 이렇게 OCA하고 크게 갈등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민자 방식 부분이나 규모를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시작하셨는데 이 부분이 인천시에서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해 갖고 일방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후관리라든지 또 민자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그냥 무턱대고 민자를 떼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는 아시안게임이 우리 체육인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인천시나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규모는 당초에 약속된 대로 제대로 짓고 그 대신에 그것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국익이라든지 인천시의 위상을 외부에 널리 떨칠 수 있는 그러한 커다란 이익에 관심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금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어쩌라는 말이냐, 사후적으로 이걸 하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수고하셨습니다.

F1 이번에 한 번 치르셨는데, 저희들한테 와 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 봤는데 이번에는 좀 소홀했다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예.

○위원장 황우여 그리고 국제적인 관례가 어떤지 모르지만 경주차들이 관중석을 지나간 다음에는 다음에 올 때까지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슨 전광판으로 경기 내용을 본다든지 흥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한번 짧은 순간에 지나가고 나면 그다음에는 개인 휴대용 TV가 있기 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점도 지적하고, 지금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안내도 영문자로 잘하고 누가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그래서 아마 모든 것을 다 수집을 하고 계시지요?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장 박준영 그게 메인석에서는 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설 스탠드는 아시는 대로 날씨 때문에 굉장히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가설 스탠드에서 보는 중계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대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저희도 가족들을 보냈는데 저한테 여러 소상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서로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 전부 수집하셔서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남 지역에는 아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들을 많이 해요. 이번에 중국에서 너무 성대하게 요란하게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잘못하면 국력 차이라고 그럴까 국격의 차이라고 그럴까, 뭔가 이미지에 있어서 바로 뒤에 연이어서 저희들이 할 때 연계점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후견적…… 또 이번에 시장이 바뀌시고 그러는 가운데 본의 아니게 절차적으로나 여러 가지 의사전달에 있어서 차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섭을 하셨던 시장과 지금 새로 수행해야 되는 시장과의 정보나 또 여러 가지 재정구상, 구체적인 내용에는 서면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내심의 의사 이런 것이 연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국가적 손실이나 시의 손실이 최소한이 되도록 문화관광부에서 후견적 역할을 꼭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박선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우여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많으셔서 아주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지금 예결위가 열리고 각 상임위가 예산 심의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은 관심이 예전만 못하셔서 우리 차관님이 편하셨는데 그래도 나와 주셔서 고맙고……

특위가 구성되는 이유는 문화관광부 한 개 부서를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한꺼번에 문제를 그야말로 일괄해서 해결해 달라고 우리 특위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또 그 외의 관련 부서에서도 관련될 때마다 저희들이 연계점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상일 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황우여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추가질의 하시지요.

○윤상일 위원 오늘 국제경기유치지원특위에서 국민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부분이 아마 월드컵 유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승주 위원장도 와 주시고 차 사무총장님도 와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언제까지지요?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장 한승주 12월 1일입니다.

○윤상일 위원 너무 관심이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인터뷰하실 때 좋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 가지고 꼭 국민적 소망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장 한승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우여 원래 한승주 위원장님이 말씀을 아끼시고 결과로 늘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지금 초를 다투는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월 2일 날 아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윤상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월드컵 이번에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평창도 이번에는 꼭 성공했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보고와 관련하여 각 기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을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재정부차관, 그 외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평창 및 강릉 지역의 경기시설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 부분은 강원도 측에서 아주 강한 요구를 해 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12월 16일 목요일 평창 및 강릉으로 현장 방문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격려 및 여론 수렴 또 저희들이 할 일에 대한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권성동 노영민 박병석 신학용
윤상일 이명규 이용경 이학재
이한성 주호영 황우여

○청가 위원(1인)

임영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임중호
입법심의관 서도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2차관	류성걸
사회예산심의관	소기홍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박선규
체육국장	김기홍
국방부인사복지실장	김용기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지원단부단장	김남규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박준영
사무총장	박종문
대외협력본부장	신중석
전라남도F1대회 지원본부장	주동식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홍승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이시종
사무총장	박성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획운영본부장	이일희
인천광역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장	이영호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정의화
기획조정본부장	위길환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사무총장	하도봉

2022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위원장	한승주
사무총장	서대원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의화	주호영	한나라당	2010.9.7